

## 다산포럼

## 시베리아 횡단열차와 바이칼

조상호  
주나남출판 대표이사

한겨울에 바이칼 호수를 알현하려 떠나는 길은 춥기도 하지만 멀기도 했다. 언제부터 인가 고구려를 자기 역사에 편입하려는 중국의 깊은 동북공정 소동이 알타이 민족의 시원을 확인시키는 엄동설한의 길을 재촉했는지 모른다. 먼저 72시간 시베리아 횡단열차를 타고 이르쿠츠크로 가서 다시 버스 8시간을 가야 바이칼이다.

횡단열차의 시발역인 블라디보스토크에 왔다. 항일운동가들이 일제의 칼날을 피해 러시아 국경을 넘어 신한촌을 건설했던 해삼위라고 불렸던 곳이다. 정주영 회장이 오래 전에 세운 현대호텔 건물이 반갑다.

이곳에서 '삭풍회'의 전설을 듣는다. 해방

이 되고, 일제강병에 걸려간 한국청년들도 폐전국 일본의 관동군으로 분류되어 시베리아 개발의 강제노동에 동원된다. 우리는 그들에게 아무 관심도 갖지 못한 죄송스러움에 고개를 떨군다.

고박 3일 동안 시베리아 횡단열차 여행은 기차가 삶을 느끼게 살리고 하지 않아도 우리는 벌써 자연의 일부가 되어 시베리아의 달빛에 젖는다. 액자 사진의 슬라이드처럼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태고의 원시림을 온통 뒤덮은 자작나무숲에 지칠 때이면 이르쿠츠크에 도착한다.

그러면서 이르쿠츠크의 역사가 떠오른다. 서유럽 자유의 세례를 받은 젊은 장교들은 1825년 12월 혁명을 감행했으나 시대는 아직 그들의 시간이 아니었다. 시대는 항상 역사라는 이름으로 선각자의 희망보다 반발짝 더디게 굴러가기 때문이다.

귀족 청년장교들이 데카브리스트는 참혹한 시베리아의 유형지에서 더 뜨거운 사랑과 영원한 자유를 목숨을 담보로 하면서 그들 미완의 혁명을 온몸으로 완성한지도 모른다. 그 중심에 이르쿠츠크가 있다.

바이칼 호수의 알흔 섬으로 들어가는 선

착장까지는 8시간을 버스로 달려야 한다. 시베리아의 눈밭은 습기가 없어서 바람에 날리는 탓에 눈길 버스 운행이 가능하다. 한겨울이라 오가는 차량이 뜯어 설원을 가르는 우리의 행군은 조금은 외로워 보일 수도 있겠다.

우리나라의 속도 같은 세르게 기동이 곳곳에서 우리의 안녕을 비는 듯 주위 속에 서 있다. 나뭇가지나 나무들이 뛰어든 소방을 비는 형형색색의 형모인 지아라가 삽풍을 온통 뒤덮은 자작나무숲에 지칠 때이면 이르쿠츠크에 도착한다.

그러면서 이르쿠츠크의 역사가 떠오른다. 서유럽 자유의 세례를 받은 젊은 장교들은 1825년 12월 혁명을 감행했으나 시대는 아직 그들의 시간이 아니었다. 시대는 항상 역사라는 이름으로 선각자의 희망보다 반발짝 더디게 굴러가기 때문이다.

귀족 청년장교들이 데카브리스트는 참혹한 시베리아의 유형지에서 더 뜨거운 사랑과 영원한 자유를 목숨을 담보로 하면서 그들 미완의 혁명을 온몸으로 완성한지도 모른다. 그 중심에 이르쿠츠크가 있다.

바이칼 호수의 알흔 섬으로 들어가는 선

구의 자궁이 이곳임을 선형적으로라도 느껴야 한다. 최남선은 불합문화론에서 이곳을 민족의 시원으로 읽어냈다.

저녁에는 바나라는 러시아식 사우나에서 바이칼의 환상체험에 얼어붙은 몸을 맡겼다. 무엇을 회개해야 하는 자학은 아니지만 자작나무 가지로 땅에 젖은 운물을 때린다. 자작나무의 향이 운물을 감싸며 우주의 봉хи한 기분이 든다. 옛날 초야에는 자작나무 조각들로 홍축을 밝히며 새 생명의 임태를 기원했다 보다.

바이칼의 마지막 밤에는 별들의 폭포를 보아야 한다. 가없는 빙판에 반사되는 별빛도 금방 얼어붙는다. 오늘 밤 얼어붙은 별 하나를 내 가슴에 품어야 하는 우주의 신비를 겸허하게 세례받아야 한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야겠다/ 오늘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윤동주 '서시')

시베리아의 푸른 눈, 초승달 모양의 바이칼은 이제 만월(滿月)의 달로 두둥실 떠오를 일만 남아 있는지도 모른다. 끝닿는 데 없는 민족의 시원을 여기에서 찾을 일이다.

## 社說

## 세계수영대회 광주 유력, 지금부터 총력을

2019 세계수영선수권대회 개최지로 광주가 유력해졌다. 국제수영연맹이 2019년과 2021년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유치 도시 신청을 지난 4일 잠정 마감한 결과, 광주와 평가리 부다페스트가 유치를 회방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평가리 부다페스트가 2019년 또는 2021년 대회 유치를 신청한 것으로 평가리 현지 보도를 통해 전해지면서 2019년 대회의 광주 유치가 사실상 확정한 것 아니냐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다.

아직 신청 기간이 남아 있어 제3의 국가가 유치를 신청할 수도 있으나 경쟁력 등 여건 상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광주의 강력한 라이벌로 여겼던 중국과 일본이 신청을 포기한 상태이고, 2013년 스페인 바르셀로나, 2015년 러시아 카잔, 2017년 멕시코 과달라하라 등 유럽과 아메리카에서 잇따라 개최돼 아시아권인 광주의 유치 의견이 지배적이다.

## 순천정원박람회 개막 준비 이대론 안된다

순천국제정원박람회가 '지구의 정원 순천만'이라는 주제로 오는 20일부터 10월 20일까지 6개월간 열린다. 정원박람회는 풍덕동 일원 총 111만㎡에 조성된 주 박람회장과 오전동 일원 국제습지센터, 수목원 등으로 크게 구분되며, 현재 개막 준비 작업이 한창이다. 박람회장 조성공사는 사실상 끝난 상태이고, 각종 편의시설과 전시관 및 정원시설 등도 모두 완료됐다.

하지만 개막을 불과 11일 앞둔 시점에 운영상 일부 차질이 예상되면서 개장 초기 여수세계박람회의 전철을 밟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놓고 있다. 박람회 조직위원회가 7일 실시한 2차 리허설을 보면 입장 대기 시간과 부족한 안내시설, 복잡한 도로 등 곳곳에서 문제점이 노출됐다.

조직자는 여수박람회가 지난해 개최 당시 미흡한 점이 많아 관람객의 지탄을 받았고, 지금껏 사후 활용방안도 마련하지 못한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남은 기간 미흡한 점을 보완해 성공 개최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아울러 박람회 이후 시설물과 정원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실질적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그래서 경제유발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고, 지역발전과 연계를 기할 수 있을 것이다.

## 無等鼓

'또 다른 세상을 만날 땐 잠시 꺼두셔도 좋습니다'

이 휴대전화 광고가 한 때 인기를 끌었다. 본격적으로 휴대전화가 보급되던 1998년, 영화배우 한석규가 뒷집진 스님과 고요한 대숲을 거닐 때 별이 물리고 잠시 후 이 멘트가 흘러나왔다.

요즘 휴대전화는 단순히 손에 들고 다니는 음성 송·수신기의 시대이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뉴스 검색을 하고, 이동 중에는 내비게이션으로 사용하며, 전자우편 답신을 보내고, 머리를 식히려 게임도 하면서 음악을 듣기도 하는 없어서 안 될 생활의 필수품이 됐다.

더욱이 행여 떠드리고 있거나, 분실했을 경우 혹 전화가 걸려 오지 않도록 하는 불안감과 저장돼 있던 지인의 전화번호마저 기억나지 않아 안절부절 못한 경험은 대부분 겪어봤을 것이다.

지난 3일로 휴대전화가 탄생한 지 40주년을 맞았다. 1973년 당시 미국 모토롤라 선임 기술자였던 마틴 쿠퍼가 '다이나트'를 개발한 것이 힘이다. 2012년 기준 우리나라 휴대전화 보급 대수는

인구 수보다 많은 5200만대에 달하는데 특유의 '밸리밸리' 문화 탓에 새 제품 교체도 빠르다. 미국 시장조사업체에 따르면 세계 88개국 휴대전화 시장 가운데 한국 휴대전화 이용자들의 연간 제품 교체율이 67.8%로 세계에서 가장 높다고 한다. 통신사와 2년 약정기간이 끝나기도 전에 휴대전화 이용자 3분의 2가량이 새 휴대전화로 바꾼다는 의미이다. 하지만 스마트폰은 편리함 못지 않게 폐단도 무시하지 못할 정도다. '스마트'한 기능 때문에 겪는 '인터넷 중독'과 '디지털 치매'는 사용자 누구나 공감하고 있다.

앞으로도 삼성과 애플의 무한경쟁 속에서 스마트폰은 상상을 초월하는 방향으로 진화해 나갈 것이다. 요즘 모바일 기기를 사용하는 신인류를 '호모 모빌리언스'(Homo Mobiilians)라고 칭한다. 하지만 쏟살같이 질주하는 디지털 문명속에서도 대숲에서 느끼는 것과 같은 소중한 아날로그적 정신과 가치만은 결코 잊지 않았으면 한다.

/송기동 체육부장 song@kwangju.co.kr

## 기고

## 광주교육 그래도 희망은 있다

김왕복  
조선이공대학교 총장·행정학박사

광주하면 '실력 광주'라는 말이 떠오른다. 1999년도 시도교육청 평가 1위에서 시작된 이 평가는 2011년까지 수능 1등급 비율 7년 연속 전국 1위, 대학 진학률 전국 1위 등의 업적이 이를 증명한다. 하지만 오늘날 광주 교육의 현실은 암담하다. 광주지역 고3 성적들이 뚝 떨어지고 수능 주요 영역에서 1등급 비율이 떨어져 수능 전국 최상위 행진이 멈췄다. 내가 고등학교를 졸업한 1974년에는 모교에서만 서울대학교를 110명 이상 합격했으나, 지금은 광주의 모든 고등학교를 다 합쳐서 서울대 합격생이 120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물론 서울소재 대학 학생자 수로 학생들의 학업성취도를 판단하는

것은 교육적이지 않지만, 이러한 추세가 '실력 광주'의 명성이 예전 같지 않음을 반영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올해는 새 정부가 들어서고 교육의 괴리화 대입도 바뀌는 것 같다. 지난 3월 28일 교육부의 대통령령에 따라 '행복교육, 창의인재 양성'이다. 우리 교육의 현실에 대해서는 높은 교육열로 PISA 성적 등 학업성취도는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2009년 한국 순위 : 읽기 2위, 수학 3위, 과학 4위) 입시위주의 과열된 경쟁으로 과중한 수업 부담, 과도한 사교육비 등으로 학생·학부모들의 행복감은 매우 낮은 수준이라고 진단하고 있다.(TIMMS 2011 수학 흥미도는 초 4 : 23%, 중2 : 8%, 어린이·청소년 행복 지수는 OECD 23개 국가 중 최하위 수준) 이런 진단을 바탕으로 '꿈과 키를 키울 수 있는 학교교육 정상화'를 추진 목표로 하고 있다. 교육부는 학생분석에 충실했던 교육과정, 인성교육 중심의 수업과 개인 맞춤형 진로교육을 통해 학생 개개인의 잠재력을 살리는 교육을 구체적 실현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주시 학교 현장에서는 교육 열기는 여전히 뜨겁다. 특히 적성 교

육을 위해 방과 후 학교에 참여하는 광주 학생 비율은 약 77%(2012년 기준 초 78%, 중 73%, 고 79%)로 전국 평균 72%(초 71%, 중 68%, 고 77%)보다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이렇게 방과 후 학교에 참여하는 학생 비율이 높은 것은 학생과 학부모들의 학교 교육에 대한 신뢰도가 높기 때문이다. 상대적으로 학원이나 교습소보다 비용이 적게 들면서도 교육의 질은 높은 데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으리라.

교육현장에서는 출탁동시(啄啄同時)라는 말을 많이 쓴다. 출탁동시란 병아리가 알에서 순조롭게 깨어나기 위해서는 어미 닦이 밖에서 쪼고 병아리가 안에서 쪼며 서로 도와야 함을 강조하는 사자성어다. 광주교육도 마찬가지다. 학교장을 비롯한 교직원들의 헌신적인 노력과 봉사, 학부모와 학생들의 학교 교육에 대한 신뢰도,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상호작용할 때 교육의 효과는 극대화될 것이다. 거기에서 인사, 재정, 시설 등 모든 정책을 총괄하는 교육청이 각종 규제를 날발하기보다 적극적인 지원 위주 시책을 편다면 광주 교육은 한 단계 업그레이드될 것이다.

그렇다면 광주교育의 현실은 어떠한가? 2011년 광주시 교육청이 확정한 '정규수업 이외 교육활동 개선안'에 따르면 고교 1, 2학년은 오전 7시 50분 이전 등교 금지, 자율 학습 시간은 평일 오후 10시, 토요일과 공휴일은 1, 2학년 금지, 3학년은 오후 6시까지, 일요일 교실 개방 금지 등 학생과 학부모의 자율적 참여를 강조하면서도 야간자율학습이나 방과 후 수업에 대해서 엄격한 규제조치를 취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주시 학교 현장에서는 교육 열기는 여전히 뜨겁다. 특히 적성 교

되는데 그 내용인즉, 아기를 아기띠로 안거나 유모차에 태울 때, 얼굴을 밖으로 향하게 하면 겁을 먹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 교수는 "만약 당신이 다른 사람의 가슴에 매달려 팔다리가 마구 흔들리는 상황에서 무방비 상태로 불비는 쇼핑센터로 향하고 있다고 생각해 봐라, 분명히 겁에 질릴 것"이라는 표현을 했다.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아기가 그 상황에서 자극과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고 한다.

이는 정서적으로 아기의 마음을 평온하게 해주고 안정감을 주는 효과 때문이라고 하니 우리나라의 엄마들과 유모차 생산업체 모두가 관심을 좀 가져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순애·광주 북구 충효동

## 기고

## 이젠 관광마케팅도 온라인 시대

김홍주  
광주관광협회장

최근 광주시와 광주관광협회가 증가추세인 FIT(개별관광객) 시장 공략에 적극 나서고 있다. 몇 년 전부터 광주 곳곳의 관광 안내소를 통해 개별관광객의 증가를 실감하고 있던 관광협회는 이러한 관광변화에 발 빠르게 대응하고자 작년부터 온라인 마케팅 전략을 세워 FIT시대에 걸 맞는 진화된 온라인 마케팅을 선보이고 있다. 트위터에 광주온라인관광안내소라는 이름으로 계

정(@gwangjuinfo)을 개설하여 365일 실시간으로 관광정보를 제공해 관광객들의 실시간 질문에 대응하고 트위터, 페이스북, 블로그를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의 4개 언어로 각 나라의 특성에 맞게 운영하는 것이다.

그런데 주목할 점은 블로그의 경우, 국가별로 현지에서 가장 인기있는 포털에 개설하여 많은 사람들이 접속하기 쉽도록 한 점이다. 이는 국내에서도 광주시가 최초로 시도하는 것이 만큼 의미가 깊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와 가까운 일본과 중국은 그런 점에서 한발짝 앞서 있다.

일본의 경우, 1COIN광주(ワンコイン光州)라는 이름으로 일본의 돈으로 1COIN, 즉 500엔(원화 약 7000원)으로 즐길 수 있는 광주를 부제로 일본 최대 이용자를 보유한 아메바 블로그를 운영 중이다. 중국 역시 뤼관청스(綠觀清斯 : 녹색지폐 한 장으로

뭐든지 할 수 있다)라는 이름으로, 녹색지폐인 중국돈 50위안(약 9000원)이면 다양한 소비가 가능하다는 의미를 담아 (역시 중국 최대 이용자를 보유중인) 웨이보에서 시나 블로그를 개설했다. 영어권은 영어권 최대 이용자를 보유중인 워드프레스에 블로그를 개설해 운영 중이다.

이들 블로그는 광주관광에서 빼놓을 수 없는 먹거리로 중심으로 각종 문화정보와 즐길거리, 볼거리 정보를 제공하고 있어 다양하게 대응하는 것이 만큼 의미가 깊다고 할 수 있다.

2013년 2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한 페이스북의 경우 현재 1주일 방문자가 1만여명에 달할 만큼 활성화돼 관련 기관의 주도로 한 몸에 받고 있는 중이다. 이는 지난 3월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된 '내나라박람회'의 증가가 기대된다. 대한민국 관광시장의 새로운 활로를 개척할 광주시와 관광협회의 진화된 시도가 결실을 맺길 기쁜 마음으로 기대해 본다.

또한, 어떤 나라의 관광객이 광주를 찾더라도 대응할 수 있는 준비된 관광지의 이미지 되었는데 그 내용인즉, 아기를 아기띠로 안거나 유모차에 태울 때 얼굴을 밖으로 향하게 하면 겁을 먹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 교수는 "만약 당신이 다른 사람의 가슴에 매달려 팔다리가 마구 흔들리는 상황에서 무방비 상태로 불비는 쇼핑센터로 향하고 있다고 생각해 봐라, 분명히 겁에 질릴 것"이라는 표현을 했다.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아기가 그 상황에서 자극과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고 한다.

일전에 영국의 시드니 공대